

참된 행복의 추구

김 종 열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 2보좌



우리는 모두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은 기쁨 가운데서 성장하고, 행복과 기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참다운 기쁨을 찾고, 느낌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모와 가족의 사랑과 친구의 깊은 우정 가운데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영육의 세계에서는 모두 완전한 소속감이 행복의 열쇠라 하겠습니까. 소속감은 그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여 주는 신앙심과 기도의 위력은 무엇보다 강하다 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며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망각하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입니다. 슬픔의 근원이 죄와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있음과 같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은 죽음을 이기고 회개하여 부활함으로써 맛볼 수 있으며,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17:3)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만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으며, 영생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6:24)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재

능만을 의지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실로 헛되고 헛된 것이며, 오히려 참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 젊은이가 오늘날에도 도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버릴 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 (엘 34:32) 라고 앰블레크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과의 관계를 맺고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상 생활에서 수행하여야 할 일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곧 남을 섬기는 일, 바로 봉사 그것입니다. 말일성도들의 신앙과 복음의 원리는 봉사하는 일을 기초로 삼고 있다 하셨습니다. 봉사 그 자체는 봉사를 받는 사람도 도울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을 더욱 발전시킨다고 킵블 대관장님은 강조 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떠한 눈부신 성취나 안락하고, 호화롭고, 끊임 없는 환희로 가득한 생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일상 생활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하며 함께 나누며 희생하며 이기심을 버리는 생활을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단일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힘껏 노력해서 현명하게 자신을 발전시키며 진정한 자기 성취를 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고 킵블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성품과 같은 자질을 갖기 위해서는 안이한 생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나 힘들여 애쓰지 않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이기심은 행복의 열쇠이며, 고귀한 성품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영생과 연결되는 매일의 꾸준하고 합당한 신앙 생활 속에서 발견됨을 간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재조직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프랭클린 디 리차즈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닐 에이 맥스웰



칼로스 이 에시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던 엘 라슨



로이든 지 데릭

대관장단은 1980년 2월 22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이 재조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재조직으로 말미암아 선교사과, 교과 과정과, 신전과 그리고 계보과의 집행 책임자는 정원회 회장단에 포함되며 따라서 교회 본부의 권능선과 행정이 간결하게 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1976년 10월에 정원회 회장단이 조직된 이래로 그 직책에서 봉사해 온 4명의 회원을 회장단에서 해임하고 다시 임명해야 했다.

회장단으로 부름받은 새로운 임원은 다음과 같다.

-칼로스 이 에시 장로, 선교사과 집행 책임자.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장로, 교과 과정과 집행 책임자.

-던 엘 라슨 장로, 신전과 집행 책임자.

-로이든 지 데릭 장로, 계보과 집행 책임자. 회장단에서 해임되어 다른 임무를 지명

받은 임원은 다음과 같다.

-에이 디어더어 터틀 장로, 프로보 신전 신전장.

-매리온 디 행스 장로,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남 아시아-필리핀 지역의 집행 관리자인 제이콥 디오거 장로의 후임으로 임명되어 7월 1일부터 일하게 된다. 디오거 장로는 솔트레이크로 귀환할 것이다.

-폴 에이치 던 장로,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지역 집행 관리자인 로버트 엘 심슨 장로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심슨 장로는 최근에 로스앤젤리스 신전장으로 성별되었다.

-더블류 그랜트 벵커더 장로,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 남부 지역 집행 관리자로 임명되었다.

1976년 10월 1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던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계속 회장단에서 봉사하게 된다.

신간 서적 안내

상호부조회 교재

본 교재는 말일성도의 모든 여성을 위해 쓰여진 교재로서 본 교재에는 영적인 생활, 가사, 어머니 교육, 사회 관계 및 문화의 정수 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세계 자매들의 필요성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특별한 지식과 풍부한 자료를 통하여 생활이 보다 풍요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될줄로 믿는다. 이 공과의 부록에는 각국의 민요와 예술 작품(천연색 21컷)이 수록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과 교회사

본 교재는 1980년 3월부터 1981년 2월까지 사용하는 복음 교리반 교사 보조 교재이다. 금년에는 복음 교리반은 교리와 성약 일부와 교회 역사를 2년에 걸쳐 공부하게 된다. 본 교재의 15과에서 교리와 성약 과정은 끝나고 16과부터 41과까지는 교회사에 관해 배우게 된다. 이 교재에서 현대 계시의 역사적 배경을 배우므로써 현대 경전과 현대 생활에 대한 이 경전의 적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1980~81년도 델기세텍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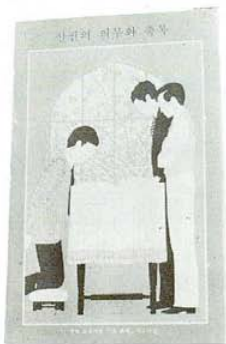
금년도 대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는 교리와 성약 103편부터 136편까지, 그리고 1844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교회 대관장의 가르침에서 발췌한 교리를 담고 있다. 각 개인이 경전과 현대 예언자의 말씀을 연구하고 책임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 왕국의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의롭게 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있다.



신간 서적 안내

신권의 의무와 축복

본서는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마련된 신권 소유자용 기초 과정 교재로서 주로 개인 학습을 위해 씌여졌다. 교재 내의 각 공과에는 교사 보조 자료가 적은 활자로 실려 있어서 교사가 묻고 싶은 질문이나 반원들의 참여를 위한 제언과 그림 설명과 도표의 사용에 대한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35과의 공과로 되어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76컷의 그림 및 사진이 들어있고, 26컷의 총천연색 말일의 신전 건물 및 내부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영원히 설 주님의 왕국

대체로 교리와 성약은 1847년 이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빛과 지식을 주셨다. 그런 까닭으로 주께서 계시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신 것은 교리와 성약이 쓰여진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본 교재에는 역대 대관장을 인도한 계시와 교훈이 실려있다. 교회 역사를 다룬 본 교재는 금년도 복음 교리반 학생 교재로서 사용될 것이며, 교리와 성약 학습 과정을 마치면 본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새로운 기초 복음반 교사 교재

기초 복음반 교재가 새로 발간되었다. 이 교재의 목적은 와드나 지부의 주일학교에서 교회의 구도자나 새로운 회원에게 복음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그들이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데 있다.

이 교재에는 12주간의 기본 공과와 교사와 신권 지도자를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교재의 반원용 교재인 「복음 원리」를 사용하게 된다.



제1 회 서울 동 스테이크 중창 대회와 아론 신권 및 청녀 시상 프로그램 실시



장관을 수여하는 표 원성 스테이크 부장.

지난 2월 2일 서울 동 스테이크 제 1 와드에서 스테이크 아론 신권 및 청녀회 주최로 제 1 회 중창 대회와 시상 프로그램을 가졌다.

8개 팀이 참가한 중창 대회에서는 5와드가 우승을 하였고, 1와드가 준 우승을 하였으며, 도봉 지부가 장려상을 받았다. 이어서 아론 신권 및 청녀 시상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상" 메달 및 청녀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이날 모임에는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하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 상" 수상자 및 청녀 표창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상:

송 용봉, 박철순, 이형섭, 구인규 (이상 1와드) 신구, 장창섭(이상 상계와드)

청녀 표창:

이영부(5와드), 손지원(도봉 지부)



수상한 형제 차례분.

울산 지방부 탄생

지난 3월 9일 울산과 포항등지에서 온 200여명의 성도가 이 호남 부산 선교부장의 감리로 가진 모임에서는 울산 지방부가 조직되었다. 울산 지방부는 울산지부, 신정지부, 포항지부, 방어진 지부를 포함하게 된다. 이 지역은 주요 공업 도시로 앞으로 큰 발전이 기대된다.

새로 조직된 지방부 역원과 지부장은 다음과 같다.

- 지방부장 - 조 학현 형제
- 제 1 보좌 - 박 한성 형제
- 제 2 보좌 - 유 수 형제
- 집행서기 - 김 일수 형제
- 서 기 - 박 무송 형제

- 지방부 선교부장 - 조 준호 형제
-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 - 이 무정 자매
- 지방부 초등학교 회장 - 장 상희 자매
- 울산 지부장 - 방 영수 형제
- 포항 지부장 - 하 현석 형제
- 신정 지부장 - 박 정수 형제
- 방어진 지부장 - 이 창재 형제

서울 스테이크 역원 친선 모임



운동 모임을 갖고 있는 역원들.

지난 3월 1일 서울 스테이크 제 4 와드에서 최 옥환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스테이크 역원과 감독단이 가족과 함께 모여 친선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스테이크 역원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고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등 여러 가지 운동으로 우정을 돈독히 하며 체력 단련 시간도 가졌다.

1980학년도 한국 신학 연구원 입학 및 졸업식



말씀하는 서 회철 교회 교육 기구 대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교육 기구인 신학 연구원 대학부 1980학년도 1학기 입학식과 제 6회 졸업식이 1980년 3월 8일 서울 동 신학 연구원 (용두동) 과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신촌) 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서울 서 신학 연구원에서 거행된 졸업식에는 300여명의 학생과 성도들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홍 무광 서울 북스테이크 부장, 고 원용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 최 옥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 김 창선 서울 서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한 인상 지역 대표가 참석하여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 서 회철 교육 기구 대표의 신권 지도자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졸업생에게 주는 축사가 있었다. 식이 끝난후 졸업생, 동문, 재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적인 "떡"과



입학식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학생들.

티가 있었으며, 전체 동문회가 있었고, 각 신학 연구원 별로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이어 가진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수 소개, 학칙 소개와 수강 신청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편리한 대로 낮과 저녁 시간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했다. 학생회 임원들이 준비한 신입생 환영회 계획 발표가 신입생들을 환송 즐겁게 해주었다. 이로써 미국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두 개의 정규 건물을 갖고 있는 한국 신학 연구원은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제 4위의 큰 신학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건물에서 처음 입학식을 갖는 동 신학 연구원의 학생들은 훌륭한 건물에 감탄하며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하는 진지한 모습도 보여 주었다.



제 6회 졸업생과 신권 지도자들.